



재난안전 안내전화

재난신고센터	1588-3650
가스사고 신고	1544-4500
전기 안전상담	1588-7500
수도 고장신고	121
전기 고장신고	123
화재·구급 응급환자신고	119
실종아동찾기센터	182
일기예보(자동안내)	131

재난안전 사이트

국민안전처	www.mpss.go.kr
국가재난정보센터	www.safekorea.go.kr
중앙119구조본부	www.rescue.go.kr
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	u-safe.jeonnam.go.kr
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	www.mokpo.go.kr
기상청	www.kma.go.kr
에어코리아	www.airkorea.or.kr

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

(58613)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3
Tel. 061.270.8242 www.mokpo.go.kr

주요사업에 만능! 안전한 목포!

작은 실천으로
안전사고 예방!



화재 시 이렇게 대피합니다

- 불을 발견하면 '불이야'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.



-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.
-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니다.
-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.
-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.
-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보세요.

- ▶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.
- ▶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.

-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.
-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어 주세요.



소화기는 이렇게 사용 하세요



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가져갑니다.

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.



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.

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.

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.

연기가 많을 때 주의사항입니다

-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.
-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.
-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니다.



평상시

- 콧과 호스, 호스와 연소기 등의 이음새 부분과 호스에서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로 점검합니다.



사용 전

- 가스 불을 켜기 전 가스냄새가 나지 않는지 살펴보고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 시킵니다.
- ▶ 가스레인지 주위에는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.



사용 중

- 가스 불을 켤 때 불이 붙었는지 확인합니다. 불이 붙지 않았는데도 콧을 계속 열어 두면 위험합니다.



사용 후

- 가스를 다 쓴 후에는 점화 코크와 중간 밸브를 함께 잠급니다.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용기밸브(LPG)나 메인밸브(도시가스)까지 잠가야 안전합니다.



가스 누출 이렇게 확인하세요!

- 가스가 누출되는지 냄새로 우선 확인하세요.
- ▶ LPG는 바닥부터, 도시가스(LNG)는 천장부터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.
- 가스누출 위험 부위에 비눗물(주방세제와 물1:1 비율)을 충분히 발라주세요.
- 비눗물 점검은 요일을 정해 수시로 해주세요.
- 가스누출을 발견하면 용기밸브나 메인 밸브를 잠그고, 공급자(LPG : 판매점, 도시가스 : 도시가스 지역관리소) 등에 연락하여 보수를 받으세요.



-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가 새면 마늘 썬 것과 같은 냄새가 납니다.
- 이는 원래 색도 냄새도 없는 가스가 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일부러 마늘 썬 냄새가 나도록 해 둔 것입니다.

안전한 전기 사용법

-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덮어두고 아이들이 플러그, 코드나 콘센트를 만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.
- 젖은 손으로 전지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.
-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을 때 코드를 잡아 당기는 것은 합선에 의한 화재 및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.
- 정전사고가 아닌데 정전되었을 경우 전기코드를 뽑고 퓨즈와 차단기를 확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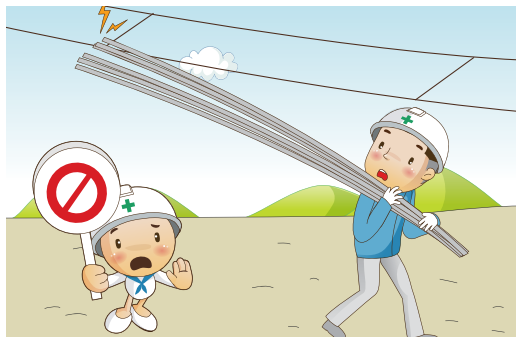


침수지역 감전사고 예방

- 늘어진 전선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맙시다.
-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였을 때는 원인을 제거한 후 사용합니다.
- 가옥이 침수되었을 때에는 개폐기를 내려두고 전문 전기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합니다.
- 침수된 가옥 수리 시 손상된 전선은 교체하도록 하고 가옥과 배선부분이 완전히 건조된 후 사용합니다.
- 넘어진 전주·가로등 등 파손된 전기시설물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**한국전력**(국번 없이 **123**)에 신고합니다.

정전 발생시

- 정전이 되면 창 밖으로 주변을 확인하여 지역일부만 정전인지, 전체적으로 정전인지 확인 후 잠시 기다립니다.
- 전열기, TV, 전자렌지, 컴퓨터 등의 플러그를 뽑아 놓습니다.
- 수리를 위해 전기선을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.
- 직접 전기를 고치기 위해 전주에 올라간다거나 전기설비를 만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.
- 한전에서는 정전이 되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출동 후 수리하므로 일부 몇 집만 정전일 경우에만 국번 없이 **123**으로 신고하십시오.



심폐소생술

- 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멈춘 지 4분 이내에 시작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며, 시간이 갈수록 뇌가 손상되어 사망하게 된다.

- 0~4분 : 소생술을 실시하면 뇌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.
- 4~6분 : 뇌 손상 가능성이 높다.
- 6~10분 : 뇌 손상이 확실하다.
- 10분 이상 : 심한 뇌 손상 또는 뇌사상태가 된다.

심폐소생술 방법



1. 심정지 확인(반응확인)



2. 119신고 및 자동제세동기 요청



3. 가슴압박 30회 시행



4. 인공호흡 2회 시행



5.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

자동 제세동기 사용법



1. 전원켜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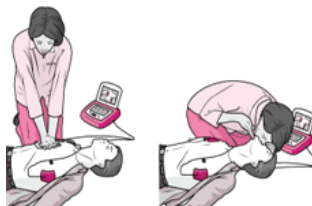
2. 두 개의 패드 부착



3. 심장리듬 분석



4. 제세동 시행



5.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



6. 회복자세

※ 회복자세란, 몸 안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힘.

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유형 10가지



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



갑자기 튀어나오다 발생하는 사고



무단횡단 사고



내륜차 사고(큰차가 회전할 때)



차 뒤에서 놀다 일어나는 사고



버스 하차 후, 앞뒤 횡단 사고



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



안전띠 사고



정차 차량 사이에서 놀다 일어나는 사고



자전거, 롤러스케이트 사고

당번약국

- 야간이나 공휴일에 갑자기 몸이 아프면 집 근처의 약국이나 병원이 쉬는 곳이 많아 매우 불편합니다.
-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나 병원이 있습니다.
- 이를 당번약국이라고 하는데, 야간이나 공휴일에 갑자기 몸이 아픈 국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집 근처의 당번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에서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.
- 휴일지킴이약국 www.pharm114.or.kr



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보상

- 과거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조사·확인하였으나 이제는 주민이 직접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에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피해 확인을 합니다.
-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, 주택, 주생계수단 등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가구당 최소 50만원 ~ 5천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으로 신고하기
국가재난정보센터 www.safekorea.go.kr